



경북 의정활동

제 58호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전화(053)602-5113 전송(053)602-5120 <http://council.gb.go.kr>



열린의정구현

도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도청 소재지 확정, 경북도 전체가 발전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자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아 제229회 임시회 개회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연이은 임시회와 지역의 각종 문화 체육 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지방 균형발전 등 다양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하여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상승하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도에서도 금융시장안정과 기업에로 사향 해소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산 분유제품의 멜라민 성분 검출로 식품안전성 문제도 심히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26일 신도청 소재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를 계기로 경북도 전체가 발전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알찬 결실을 맺도록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각종 안전처리와 의원연수회 등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제 226 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26회 임시회는 2008년 7월 31일 11:00 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7월 31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6회 임시회 회기 설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안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 북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다.
-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천(영주) 의원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영주) 의원과 윤영식(예천) 의원이 농수산위원회로 조정을 하였으며, 북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위원장에 정부용(울릉) 의원이, 부위원장에 남중식(청송)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고, 위원으로는 김수용(영천), 박병훈(영주), 박순범(칠곡), 박진현(영덕), 백천봉(구미), 이상태(울릉), 장길화(비례), 장두욱(포항), 장세현(포항), 전찬삼(영진), 정경구(안동) 의원이 선출되었다.
-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위원장에 나규택(고령) 의원이, 부위원장에 윤장욱(구미)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고 위원으로는 김영기(청송), 박기진(영주), 백영하(김천), 손덕임(비례), 손진영(영주), 이준호(청도), 장병익(군위)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26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이어 본회의 종료 후 12시 경상북도의회 현관 입구에서 도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교과서 북도의 일본영토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제 227 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27회 임시회는 2008년 8월 27일 11:00 본회의를 개최하여 9월 8일까지 13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13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 27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7회 임시회 회기 설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안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공식인 부의장 선거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거쳐 김용규(김천) 의원을 선출하였다.
-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채육주 의원, 남중식 의원, 안순덕 의원)을 하고 산회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장길화 의원, 손덕임 의원, 윤영식 의원)을 하고 산회하였다.
- 휴회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각 실·국·본부별 업무보고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 제4차 본회의를 9월 8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수련 강습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안보고 등 8건을 승인·의결하였으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산 출신 아우경 의원을, 부위원장에 청송 출신 김영기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지난 27일부터 개최된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 228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28회 임시회는 2008년 9월 24일 11:00 본회의를 개최하여 9월 26일까지 3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1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9월 24일(수)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제228회 임시회 회기 설정의 건,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안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적의원 53명 중 찬성의원 50명에 찬성 38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통과되었다.
- 헌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월 24일(수) 오후 1시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반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다.
- 제2차 본회의를 9월 26일(금)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을 최종 심사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로 처리된 경상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은 재적의원 53명 중 찬성의원 49명에 찬성 36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가결하고 지난 9월 24일부터 개최된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 229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는 2008년 10월 7일 11:00 본회의를 개최하여 10월 20일까지 14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8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7일(화)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제229회 임시회 회기 설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안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였다.
- 휴회기간인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도청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기간 중인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포항에서 의원연수회를 가졌다.
- 제2차 본회의를 10월 20일(월)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일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승인·의결하고 지난 10월 7일부터 개최된 제229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0월 8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가진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 참석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도의 그린에너지산업을 일으키는 데 많은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0월 3일 영천시민 운동장에서 생활체육동호인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경상북도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300만 도민의 화합을 이루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0월 17일 영주 서천둔치에서 개막된 경상북도식품박람회에 참석하여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의 대표 식품이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9월 24일 도청 구내 식당에서 가진 청정 경북한우 우수성홍보 시식회에 참석하여 시식을 통하여 경북한우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쇠고기 60kg을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7월 14일 독도에서 일본 중학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방참에 항의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만세삼창을 외쳤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0월 1일 경일대학교에서 개최된 농민사관학교 한미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과 비전을 가진 농업CEO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7월 31일 제226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회 현관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규탄결의를 하고 만세삼창을 외쳤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9월 25일 포항 청송대에서 전국 시도 의회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 당면 현안과제를 협의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8월 13일 인터볼고 호텔에서 가진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지식기반산업의 중심과 지역경제 진흥의 산실이 되기를 비란다고 강조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8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전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일본 사회교과서 독도의 일본영토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를 채택한 후 이상천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상천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9월 4일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에서 가진 포스코 발전용 연료전지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화석연료 고갈과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인 연료전지 사업을 차세대 에너지 메카로 성장시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9월 1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가진 베이징올림픽 출전 경북연고선수단 환영식에 참석하여 훌륭한 스포츠 정신으로 대한민국과 경북의 명예를 빛낸선수들을 격려했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9월 30일 영천에서 가진 보건환경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식품의 안정성 강화 등 도민의 건강증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9월 22일 안동 시민회관에서 열린 민방위대 창설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민방위발전 유공자를 격려하고 민방위장비를 견학하고 시연해 보았다.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에서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 함양과 의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의원 연수회를 가졌다.

»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위원장 이현준)에서는 9월 8일 도청강당에서 의정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인 영덕 풍력발전소 및 포스코 연료전지공장을 현지 방문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타 시도 지방공기업 경영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우리도의 공기업 육성에 도입하기 위하여 경남개발공사의 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및 부산도시공사의 신항만 배후부지, 거제대교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우리 경북에서 시작되어 조국의 근대화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과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를 방문하여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인력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 병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입소한 어르신 등을 위로·격려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경주시 폐기물매립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영어 조기교육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지역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영주 영어체험센터를 방문하여 주요시설과 관리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밀식형 사과원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내 11개소 초밀식사과원을 방문하여 초밀식과원에 대한 이해 부족, 우량묘목 확보방안 등 농가여론을 수렴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소득 보전과 경북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경북도청 구내식당에서 시식회를 가졌다.



»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주)경북통상을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수익성 증대방안에 대하여 강도 높은 주문을 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도내 기업 및 투자유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김천의 삼성 에버랜드와 현대 모비스를 방문하여 모기지 부실실태와 고유가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의 현안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의용소방대원의 강인한 체력연마와 일체감 조성으로 대형재난 현장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도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경복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 구현과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시공을 위하여 문경 동로~상리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철근 탐사기 및 코어 채취기 등을 직접 사용하여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을 벌였다.



» 경상북도의회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보지인 안동시와 상주시 현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무용)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영토수호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 공고화, 독도 탐방·교육 확대,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의회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방유봉 위원(울산)



박명훈 부위원(경주)



고우현 위원(문경)



권영만 위원(영호)



김만용 위원(의성)



김숙향 위원(비례)



김영택 위원(구마)



남종식 위원(청송)



박노옥 위원(영호)



박영화 위원(고령)



윤영식 위원(예천)



이재철 위원(상주)



장경식 위원(포항)



정경구 위원(안동)



최윤희 위원(비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계속되는 침탈 반항에 대하여 강력하고도 난호히 대처하고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일본 정부의 헛된 야욕에 난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그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성실히 실천하도록 결의하였다.

● 이어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제8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새로이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정 질본서에 대한 답변요지서가 질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달시간으로는 답변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요구하였고, 능동적인 자치입법을 위해 지원활동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법 전문교육 이수 등 새로운 지식 습득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이어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환동기간 내 제출되는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경신출신 이우경 의원 부위원장에 청송출신 김영기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는 각종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도민이 낸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도 본청의 직제개편에 발맞춰 신속하게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 직제를 변경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였고, 현행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중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 교육감에 대한 의안철회의 명시규정이 없는 것을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하여 교육감의 의안철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의 행정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정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2009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8. 11. 14부터 11.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조정실 등 66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기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였다.

제8대 후반기 도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 제정 >>>



이상태 위원(상울류)



장경식 부위원장(포항)



나규택 위원(고령)



박진현 위원(경주)



손석임 위원(비례)



이상용 위원(영양)



이상효 위원(경주)



정경구 위원(인동)



황상조 위원(경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제8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로부터 도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과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였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북은 예로부터 농도로서 과일·벼농사 등 브랜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너무 경제쪽으로 국한된 홍보는 지양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홍보활동에도 우리 경북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물 관리·등록에 노력을 당부하고, 또한 인터넷신문기자의 현장 중심취재가 부족한 것 같으며 인터넷 신문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기자들의 교육과 유인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경북기획안에 대해서는 영어체허합습 운영에 있어서 자체 운영하는 곳은 도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및 육성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경제과학진흥국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별 특성화 대책과 고유가로 인해 시내·시외버스 노선폐지 및 노선축소한 곳이 없는지와 시내 놓여준 버스를 비롯한 시외 버스 노선 운영실태를 도에서 직접 확인 감독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크나 소요 인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5:5로 배분하여 파견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4개 시의 인력은 파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따졌으며, 이로 인해 일선 시군의 공무원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에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등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한편 조례 등 안건심사에서는

안건심사에서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유사·중복되거나 세분화된 과·팀을 통폐합하고, 한시기구의 시한도래 전 정비와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기능은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후반기 도정을 적극 뒷받침할 고객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 가결하였다.

이어서 3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 예정지가 지난 6월 8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도청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 한편 위원회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최근 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대

개발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국가에너지계획에 맞추어 경북이 성장 기록제로 삼을 수 있도록 경북도의 동해안에너지플러스 조성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의회지원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아사아 최초 연료전지설비 제조공장인 포스코 연료전지공장과 영덕 풍력발전소,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현장 환동을 펼쳤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흐름인 석유 에너지 변화에 적응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하고, 우리 동해안 지역이 청정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지역 으로 우리 도가 친환경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동해안에너지 플러스 조성사업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어 제228회 임시회에서는

타시도 공기업인 개발공사 경영우수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북 부안군 모항개발 현장과 경남개발공사의 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와 부산도시공사의 신항배후부지, 거가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현장 환동은 경쟁력 있고 수준 높은 지방 공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타시도의 개발공사 현장방문을 통해 경영우수사례,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집중적으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8대 후반기 도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현장 목소리 의정활동에 반영 >>>



이사하 위원장(운영경)



권영만 부위원장(보통회)



김수용 위원(영진)



김숙향 위원(비례)



김종천 위원(영주)



송필각 위원(칠곡)



윤창욱 위원(구미)



이우경 위원(경신)



김대호 위원(구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사하)는

●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제8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에 따라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기강확립 간찰활동이 1월부터 시작하여 매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노출 간찰활동 방안을 강구하고 간찰활동이 형식적인 활동에 머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경북개발공사의 방만한 사업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감사관실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회계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 측면의 감사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어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에 의한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어르신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다.

한편 경북도립대학 업무보고에서는 2008년도 예산 82억원 중에 도비가 61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도대학의 자체에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홍보활동으로 많은 홍보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도립대학으로서 특성화 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경도대학의 예산을 보면 학생 납입금이 11억 83백만원인데 인력운영비 세출이 35억 51백만원으로 학생납입금으로 인력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조치를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는데 인력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9월 3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분경시립요양병원 도립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현지방분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경북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새마을운동이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전파되어 국위선양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 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 현황을 파악하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기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애쓰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보건복지위원들은 현지방분에서 21세기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교육과 새마을 해외보급 등 새마을 국제화 추진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이 생활속에 뿌리 내리고,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입소자 현황, 입소 대상자 및 입소절차, 보조금 지원현황, 주요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입소자인 어르신 등을 위로·격려했다.

● 이어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틀간 대구영어마을, 영천 나자렛집,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과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주요시책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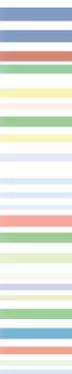
이번 현지방분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영어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영어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집중식 영어교육 등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우리 사회가 출산을 감소, 고령화, 혼인을 감소, 이혼을 증가,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으로 가족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추세에 있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개발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높이는 시책 등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보건복지위원들은 현지방분에서 대구영어마을의 시설 및 운영현황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고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고, 아울러 영천 나자렛집을 방문하여 입소자 현황,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등 운영현황과 시설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둘째날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경상북도 보육정보 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고, 여성과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실질적인 보육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하는 한편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현지방분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제8대 후반기 도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수렵강습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 >>>



백천봉 위원장(구미)



김만용 부위원장(의성)



권인찬 위원(안동)



김영기 위원(형성)



김응규 위원(김천)



박순병 위원(칠곡)



김지수 위원(성주)



전찬걸 위원(울진)



채옥주 위원(비례)

먼저 환경해양산업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도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분제진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고 협조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2008년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나은 교육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였다.

한편 조례 등 안건심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수렵강습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 중 야생동·식물 등에 관한 규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정으로 (2004. 2. 9) 일원화되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경상북도 수렵강습회 운영 조례」는 상위 법령 폐지에 따라 위임 근거가 없어져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 본 조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각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의 일부 비비점 등이 지적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존 조례의 비비점을 보완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하고, 위원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준칙안을 마련하여 통보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선·보완 의결하였다.

한편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9월 3일 포항지역의 경상북도과학교육원, 포항교육청과 경상북도 수목원을 방문하고, 이어서 9월 4일은 경주지역의 경주 폐기물처리장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하여 분제집과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목적은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이 되어 자칫 소홀하기 쉬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운영상황과 현황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분제집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과학교육원과 포항교육청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지역 교육여건을 파악함으로써 의회 차원에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음과 동시에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경주폐기물처리장의 처리시설, 경상북도수목원과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성현황, 보존 및 관리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어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심사에서 도교육청과 8개 직속기관, 12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기로 하였으며, 도 본청 환경해양산림국 등 소관기관 감사에서는 지역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하수도 등 환경행정 서비스의 추진실태와 독도 영유권 보존사업 등 해양개발 정책을 집중 감사기로 하고 도교육청 및 환경해양산림국 등 소관기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확정지었다.

한편 조례 등 안전심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에 「정부조직법」개정 사항인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써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선발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을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여금'을 모범공무원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다.

한편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10월 9일에서 10월 10일까지 1박 2일간 안동·영주지역 소관 기관과 관련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첫째날인 9일은 영주지역의 영주교육청과 영주영어체험센터를 방문하고, 둘째날인 10일은 안동지역의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관련 사망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목적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운영 현황과 현안사항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분제집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교육청의 일반 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영주영어체험센터의 주요 시설과 관리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의회차원에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음과 동시에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의 운영 현황과 관련 사망사업 현장의 사업 추진실태 등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분제집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제8대 후반기 도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초밀식형 사과원 조성지 실태 조사 실시 >>>



김영만 위원장(군위)



박노옥 부위원장(봉화)



남종식 위원(형송)



박기진 위원(성주)



윤영식 위원(예천)



이종원 위원(영주)



이준호 위원(청도)



정무웅 위원(울릉)



조동만 위원(영양)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 먼저, 제22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3일 3일간 도내 8개 시군 11개소 초밀식사과원 조성지를 방문하여 현장 애로사항과 분제진

등을 파악하고 농가 여분을 수렴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결과 초밀식과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초밀식사과원의 조성 및 관리기술 매뉴얼 부재, 1년 사업으로 초밀식과원 조성에 한계가 있으며, 초밀식과원 성공의 관건인 우량묘목 부족, 초밀식과원 확대를 위한 연계지원 부족 등이 분제진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초밀식사과원 개념 확립 및 단계별 지원책 강구, 초밀식사과원 조성 표준기술 조기 확립,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의 투명화 및 시스템화, 우량종묘 조기확보를 위한 지원 매뉴얼 개발,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적극 강구되어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될 것으로 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FIA특별대책위원회 상반기 활동에 대한 보고와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경북 농어업 중장기(2020)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농수산연구 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순회방문 및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 반영 등 FIA대책특별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FIA 극복을 위한 지역농정의 성공 모델을 정립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제8회 후반기 첫 도정 주요업무보고에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신성장 동력의 확충을 위해 비전 2020수립과 정예인력 양성, R&D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급격한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체질을 강화토록 하고,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에 대응한 「한우산업육성대책」 국제 곡물가 급등에 대응한 조사료, 밀 등 자급기반 확충과 고유가 등에 따른 유류, 화학비료 등 생산비 절감대책 추진에 강력한 시책을 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연이어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경북쌀 품질향상과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해 직파 재배 등 생산비 절감 기술 시범을 확대하고,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기술 개발보급을 살구, 양앵두, 블루베리 등 고소득 대체작목 연구 등에 중점 추진하여 개방화 시대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에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조례 등 안전신사에서는 농수산물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농어업 인구의 감소로 노동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어업인의 생산 활동과 더불어 출산, 보육, 가사노동으로 농어촌에서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여성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농어업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 전문 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농어업인의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경영능력 및 복지향상 지원범위 규명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정착 지원시책 강구, 복지 증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자문 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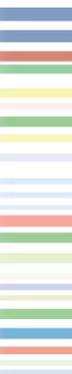
● 한편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농수산물위원회 소관부서의 도정 업무전반에 대한 도정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대안 제시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사요구자료 작성을 요구하는 한편, 심도 있는 현장 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봉화 고냉지역초시험장 등 현지감사 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한편, 농수산물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군위군 부계면 소재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친환경농법으로 토마토, 오이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둘러보며 에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군위를 소재 동아HPC를 방문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의 현황을 견학한 후 위생·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은 물론 자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수지역에 설치된 영주APC(기집산지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선별·저장·포장·판매를 일관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한 후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는 차별화 전략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으며,

이어서 비의 수집·건조·저장을 자동화시설로 일괄처리 하는 서안동 농협RFC를 방문, 현황파악과 시설을 견학한 후 개방화에 대비한 쌀 산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농촌지역 주거환경화를 위해 추진하는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전원마을 조성지를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둘러본 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배가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8대 후반기 도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전개 >>>



한혜련 위원장(영진)



이재철 부위원장(상주)



박명훈 위원(경주)



박순열 위원(영도)



방유봉 위원(울진)



백영학 위원(김천)



안순택 위원(의성)



장세현 위원(포항)



최윤희 위원(비례)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제8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 소관부서로부터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업무계획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투자통상국 업무보고에서는 지자체별로 고용 창출, 세원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장동력인 기업유치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지 선정시부터 자금 지원 등 창업시까지 맞춤형 원스톱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광역 지자체간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BRICS 핵심국가인 인도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과 중국 진출 후 실패한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해외 시장 진출시 신중한 검토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비해서 경북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경상북도 공동 브랜드인 실라리안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관광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관광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경북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지역 관광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관광 기반시설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양적·질적으로 증대하고 고급화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관광패턴 변화에 부합하는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밀착형 관광자원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국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소외지역·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경북사랑 티켓제도, 종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등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등 3대 문화권에 대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2011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행사가 실효성은 있는지와 준비에 분제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행사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행하도록 주문하였다.

● 한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임시회 기간중인 9월 4일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를 방문하여 그동안 많은 투자를 통하여 구축된 행사장의 운영실태와 시설을 견학한 후 행사장 이용도를 높이고 경주방문 관광객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는 인프라 활용방안과 법인의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경주문화엑스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점검하여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토론했다. 또한, 포항 호미곶 관광지 개발현장을 방문하여 관광전시관 등 시설을 견학한 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될

인접지역인 장기면, 동해면 일원의 개발 계획과도 연계 검토하여 사업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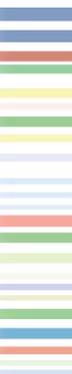
이어서 9월 5일에 (주)경북농상을 방문하여 농산물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생산품의 교역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수익성 증대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을 하였으며, 경산육상경기장 건립현장 방문에서는 현장을 둘러 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청도에 있는 한국근로자복지연수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황 청취 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많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시설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조속, 마련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 한편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229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10일에 제89회 여수 전국 체육대회 개막식을 참관한데 이어 11일에는 육상, 배드민턴, 보디빌딩 등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하여 출전선수 및 임원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하였다.

또한 10월 14일에는 도내 기업유치환경 실태확인 및 투자유치 기업체에 대한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 김천의 삼성 에버랜드와 현대 모비스를 방문하여 모기지 부실 사태와 고유가 충격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기와 환율 하락, 수출 및 내수침체 장기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도내에 유치된 국내 투자기업들이 어떤 현안과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와 불편사항 등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발주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 제정 및 생동감 넘치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 전개 >>>



김기홍 위원장(명덕)



김영택 부위원장(구미)



고우현 위원(운경)



박영화 위원(고령)



손진영 위원(영주)



이현준 위원(예천)



장경화 위원(비례)



장두욱 위원(포항)



장병익 위원(군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 먼저, 제22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난 7월 26일 집중호우지역인 봉화군 준양면을 방문하여 사망 및 실종사고가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 및 유실도로인 국도 31호 및 지방도 910호 교통두절 현장과 주택침수로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을 둘러보고 피해주민들을 격려하고 위분금을 전달하였으며,

아울러, 소방관계 공무원, 재해관련 공무원들을 잇달아 방문하여 수해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지역주민 및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적극적인 피해복구활동을 펼쳐 달라고 부탁하였다.

● 이어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왜관~대구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과 상주 화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지구, 고령소방서 신축현장, 청도~경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경산소방서 등 도내 주요 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사현장의 애로





사항과 지역주민의 민원이 될 만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기로 하였다.

이번 현장 활동은 예년에 없었던 뻘뻘한 일정으로 2박 3일간 4개 개발사업 현장과 1개 소방서를 점검하는 강행군은 제8대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이 되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특히 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의원들이 검측장비를 직접 다루어 보고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보는 등 서류에 의한 업무보고에서 탈피한 생동감 넘치는 현장 활동을 전개하였다.

● 한편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시공을 위한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20일 본회의에 상정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97년부터 도가 명예감독관 제도를 행정지침으로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관계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질적 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명예감독관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명분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명예공사 감독관의 합법화로 부조리의 산실이던 건설 행정의 신뢰를 되찾고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현장을 감독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 건설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명예감독관은 도 본청 및 사업소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의 장의 이해관계가 없고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생동감 넘치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위해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0일 분경 동로~상리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도로 포장을 실시한 현장에 가서 코아채취기와 철근탐지기 등을 직접 사용하여 공사현장을 파헤쳐 봄으로써 아스콘 피복 두께, 철근강도, 배근간격 등이 설계도면과의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또한 공사에 납품된 관급 및 사급자재의 품질 및 규격도 직접 확인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도로개설로 인한 농지피해 상황 및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고 아울러 공사로 인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서 10월 13일 군위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방문하여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확고한 자신감이 생겨나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도내 소방대원 전체가 모인 이 자리가 화합과 새로운 다짐의 장인만큼 한마음이 되어 즐거운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경북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그리고 이 날 행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 모두는 시군별로 차려진 부스를 일일이 방문하여 지역 의용소방대 및 공무원들과 당면과제와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때로는 풍물패와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등 지역민과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연이어 소방학교를 방문하여 소방학교의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후 교육프로그램의 내실과 현장중심의 교육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여 줄 것과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을 강조하고, 주5일 근무로 여가 생활이 늘어난 만큼 분화재 주변 위락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물놀이 사고의 수난구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친 후 안동댐에 도내 유일하게 구성 되어 있는 안동소방서 관할의 119 수난구조대를 방문하여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난구조 장비를 직접 다루어 봄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직접 체감하여 보는 시간도 가졌다.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활발한 진상조사활동 전개 >>>



황상조 위원장(경산)



이상용 부위원장(영양)



고우현 위원(문경)



권영만 위원(봉화)



김기홍 위원(영덕)



김영기 위원(청송)



나규택 위원(고령)



박기진 위원(성주)



박순연 위원(형도)



이상태 위원(울릉)



전찬권 위원(울산)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상조는

● 지난 6월 8일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도청이전 예정지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으로 선정 발표한 후 탈락지역의 도민과 각종 언론에서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6월 20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도청 예정지 선정 과정에 대한 행정사부조사 발의안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 이어 6월 30일 도청 이전 예정지로 신청하지 않는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경산 출신 황상조 의원을 부위원장에 영양 출신 이상용 의원을 선출하였다.

●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개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먼저 진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7월 25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진상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이를 7월 31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의결한 후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하였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통지 및 집행부에 대한 서류요구와 함께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한 자료수집과 의견수렴활동을 펼치고, 8월 6일 제2차 진상조사 특위를 개최하여 도청이전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증인에 대한 신분을 하였으며, 8월 11일 ~ 8월 12일까지





도내 시군의 신청을 받아 확장한 영천(포항, 경주 포함), 안동(예천 포함), 상주지역 현지를 방문하여 의견수렴활동을 실시하였다.

●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단 및 기간 연장**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시민단체 및 언론 제기사항과 현지 의견 수렴활동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의 의혹해소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며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혹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통보를 받았다.

진상조사특위에서는 제3차 회의(8. 19일)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추진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진상조사활동을 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위의 구성 목적인 도청 이전후보지 신장과 관련한 의혹사항에 대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조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위가 수행할 만한 자료가 제출 될 때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단기로 결정하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후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하겠다는 의사와 추가기간이 소요된다는 협조요청이 있어 8월 27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기간을 10월 7일로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한 후 집행부의 조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하였다.

한편 집행부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일정 조정안을 의결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재개하였다.

●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확인팀 구성 및 증인·참고인 신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요자료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소지를 차단하고 정보누출에 대한 보안과 정확성 자료분석을 위하여 자체 확인팀을 구성하고 제한된 장소에서 확인작업을 하였다.

중요자료에 대한 확인작업은 분야별 3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가단 채점표 확인팀은 특위위원 3명과 의회 직원 7명, 임화자로 집행부와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하여 채점표 원본 확인과 그룹별 집계작업을 실시하고, 회의록 녹취록 일치여부 확인팀은 특위위원 3명 의회직원 9명, 임화자 1명이 참석하여 제출된 회의녹취파일을 녹취하여 공개된 추진위 회의록과 대조하였으며, 간접관련 집행부 법률자문 확인팀은 특위위원 3명, 의회 직원 1명이 참석하여 집행부에서 자문한 과정에 대해 자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각 분야별로 확인작업을 펼쳤다.

제기된 의혹과 제출된 자료 및 확인팀을 운영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특위에서는 9월 8일 제6차 특위, 9월 9일 제7차 특위, 9월 11일 제8차 특위에서 주요 증인과 참고인을 참석시켜 늦은 시간까지 9개의 조사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신분과 의견진술을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역에서 참석한 참고인들에 대하여 최대한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의혹이 해소되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7월 31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여 9월 18일 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 시민단체 제보사항과 언론보도사항 및 30여 가지의 자료에 대한 분석과 증인 4회 5명(연인원 8명), 참고인 4회 12명(연인원 20명)에 대한 신분과 의견진술, 9차례의 회의와, 3회의 현지의견 수렴활동,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9월 18일 제9차 특위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9월 24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보고서를 의결하였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들은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진행과정에서 특위활동이 중단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상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한 조사가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지역간 민감한 시안에 대한 조사인만큼 많은 부담이 있었고,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한계가 있어 모든 의혹사항을 밝히는 데에는 부리가 있었으나,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 Special Committen on Dokdo Protection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발족 및 본격 활동 개시 >>>



정무웅 위원(상물릉)



남종식 부위원(상청송)



김수웅 위원(영진)



박병훈 위원(경주)



박순범 위원(칠곡)



박진현 위원(영덕)



백천봉 위원(구미)



이상태 위원(울릉)



장길화 위원(비례)



장두욱 위원(포항)



장세현 위원(포항)



전찬건 위원(울산)



정경구 위원(인동)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무용)는

●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최근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든 비례 자원의 보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모하고도 헛된 도발에 대하여 실효적 난계를 넘어 영토수호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핵심 도의원 13명을 위원으로 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경상북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북도의회차원에서 경상북도의 '경상북도독도수호대책본부'와 힘을 합쳐 독도수호를 위한 특별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올릉 출신 정무용 의원을 위원장에, 청송 출신 남종식 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출한 후 정무용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끊임없는 도발과 최근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IN)의 독도의 지위를 '주권 미확정 상태' 지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아울러 이러한 야만적이고 몰염치한 일본 정부의 부모하고도 헛된 도발과 불리하게 돌아가는 대외정세를 볼 때 결코 좌시하지 않고 집행부와 한심하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난계를 넘어 영토수호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마친 경상북도 도의원들은 도의회 전장에서 일본교과서 독도의 일본영토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 도의원 54명의 이름으로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강점으로 한국인과 전 세계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의 질서를 깨뜨리는 제국주의적 망령이 되실어난 것과 부관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 반행에 대해 울분과 개탄스런 심정으로 독도에 대한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반성과 실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300만 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결의하였다.

● 또한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와 자체 간담회를 거쳐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향후 추진방향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1일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실상 처음 열린 회의로써 독도수호대책본부로부터 독도수호 신규상, 독도수호 추진대책 등 경상북도의 추진 상황과 종합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우리 땅 독도수호를 위한 제반 문제점을 함께 각성하고 토론했으며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에 대한 반행과 야욕을 강력히 저지하고 일부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되돌릴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독도를 적극 사수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으며,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환봉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로 일본의 치졸하고도 야만적인 도발과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지 않는 대외 정세를 볼 때 결코 가볍게 판단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제부터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난계를 넘어 영토수호의 차원에서 장기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향후 환봉기본방향을 우리 나라 영토 독도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영토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 공고화 ▶독도 연구·홍보 강화 ▶지방외교역량 강화 ▶독도 탐방·교육 확대 ▶올릉도 연계사업 지원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영토임을 전 세계에 천명하고 보다 확실한 전략과 실효성 있는 대책 강조

» 박순범 의원(교육환경)



이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신애 동료의원님 여러분, 칠곡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박순범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5일 봉화군 일대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뜻하지 않는 재해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은 물론 차제에 유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보다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시에 독도 영유권 교육을 명기하기로 결장하는 등 천인공노할 망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독도 영토수호 종합대책을 내놓고 실효적 지배 강화를 천명한 바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실효적 지배를 위한 기반 구축, 지방외교 역량 강화, 독도 연구 및 홍보 강화, 울릉도 연계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독도 수호를 위한 1조 4,000여 억원의 특별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영토임을 강경하고도 분명하게 전 세계에 천명하되 우리의 대응 전략들이 자칫 독도분쟁을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 위한 일본의 교묘한 술수에 말려들 수 있음도 엄중히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독도가 우리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우리의 영토임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독도의 실효적 지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그리고 환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각종 권한과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경상북도로 이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독도 대책도 거의 우리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일부 수용된 것인 만큼 독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독도사업을 주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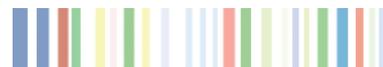
둘째,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대책이 강력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27일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근거자료들을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국가 행정부와 주요 민간단체에 홍보 서신을 보내고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 등 경북도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다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며, 경상북도의 관할 하에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홍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잠재된 의식 속에는 우리의 잃어버린 땅이 있습니다. 바로 만주와 간도 그리고 대마도입니다. 차제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과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독도 사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보다 확실한 전략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폐장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반면 당초 약속과 달리 부진한 양성자가속기사업과 한수원 본사이전 추진 촉구

» 박 병 훈 의원(통상문화)

존경하는 이상진 의장님,
그리고 신매 동료의원 여러분!
제22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민선 4기 김관용 도지사의 출범 이래 동·서·남해권 발전특별법, 북부권 균형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특별법 등의 법안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유치 등 경북의 신성장 동력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달리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결과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부분의 예산이 크게 깎이는 등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대구·경북 혼내분이 예산 배장에서 현실화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북의 최대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자원화 및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등의 사업에 있어서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를 비롯한 포항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야심차게 준비하여 온 것임에도 신재생에너지단지등에 대한 호남권과의 경쟁이 불거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광역경제권 전략산업분야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6개 광역경제권에 특화분야별 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 하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호남권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경합하여 오직 지역발전을 염원하며 89.5%나 압도적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방폐장 건설사업은 10만드립 규모의 1단계 방폐장을 2009년 연말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재 공사진척률 40% 이상을 보이는 등 거침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7.4%에도 지나지 않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신선했던 양성자가속기사업은 국가 R&D사업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총 건설사업비 2,800억원 가운데 국비 1,280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1,601억원을 고스란히 경주시에 부담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은 또 어떻습니까? 2005년 3월에 제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한수원 본사 경주의 이전은 두말할 나위 없는 법률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방폐장 확정 3년이 지나도록 본사 이전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핵폐기물 처분장은 부녀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국가적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우리 경북과 경주가 해결하면서 경주는 스스로 한수원 본사 등의 이전을 약속하였음에도 이차림 후속사업들이 계속 지연되고 방폐장관리공단이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지 않고서 경북도가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동해안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목소리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북도는 방폐장을 경주로 유치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내어야 하는 3대 국책 사업의 원활한 집행은 물론, 유치지역에 지원해야 하는 사업 내용의 확장과 예산 지원 등이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만전을 기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한수원 본사에서 분사되어 나가는 것인 만큼 당연히 방폐장 지원 특별법에 의해 경주에 유치기로 약속한 한수원 본사 고유업무이기에 처음 정부의 약속대로 경주 지역에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폐장 유치를 기점으로 한수원 본사, 그리고 4개의 원전을 갖고 있으며, 전국 고준위폐기물의 54%가 저장되어 있는 경주는 그야말로 원자력에너지의 중심지로서 그와 관련한 세계적인 연구 및 사업 등은 물론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기에 동해안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경주 지역의 문제는 비단 경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사활이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진상조사 결과 의혹과 담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니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명한 판단 당부

» 김수용 의원(행정보건)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신매·동료 여러분! 영천 출신 김수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00만 도민의 관심 속에서 도청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50일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조사를 통하여 의혹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첫째, 평가단의 채점시 공정하고 계량화된 채점 기준표를 만들지 않고 평가단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채점을 하였으며, 특히 인구중심지와 지리중심지를 지정하여 계량화된 채점기준을 마련한 항목에서 조치도 그 기준을 무시하고 평가단의 임의로 주관적 잣대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은 분명코 잘못된 일입니다.

불공정 평가의혹에 대해 특위는 시·군 추천 23명과 국토연구원 1차 선정 49명, 추가 선정 11명 등 3개 분류로 나누어서 점수를 집계했습니다. 그러나 2차로 추가 선정된 11명의 평가단은 한두 개의 항목도 아닌 14개 세부항목 모두가 안동, 예전을 1위로 2위와의 점수차를 크게 벌려 채점하였습니다. 83명 채점단의 59%인 49명이 안동, 예전을 10개 항목에 1위로 채점하면서 2위와의 점수 차이를 21점으로 벌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채점단의 13%인 11명은 14개 항목 모두에게 1위와 2위와의 점수 차이를 86점이나 벌였습니다. 이들 집중된 점수가 바로 특정지역에 특정집단이 점수를 밀어준 쏠림현상으로 담합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11명의 평가단의 담합행위가 도청후보지를 결정지었다고 판단됩니다. 도청이전이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다 같이 박수를 보내고 그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통계학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있어야 할 평가결과는 그 범위를 벗어나 불공정으로 평가받고 현재 특정지역으로 담합의혹을 드러냄으로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비애를 느끼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둘째, 간접비용과 관련하여 도청이전 추진위에 인지 접수된 건수는 총 31건으로 안동, 예전 15건, 의성 7건, 영천 4건, 포항 3건, 경주 1건, 상주 1건으로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유형별 간접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은 공정성을 잃고 시·군장 홍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 정치인과 언론사의 고유영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나는 궁색한 변명의 고분변호사의 자분을 믿고 간접을 부여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조례위반이고 추진위원회의 월권행위이요, 300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300만 도민들은 그 결과를 심의 평가 내릴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경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길인가를 도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북도의회는 각종 의혹과 담합의 결과로 잘못 평가내린 점을 이제라도 바로잡아 올바르게 평가를 내야 할 역사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특위조사 결과 담합에 의한 밀어주기식 채점결과에 의한 후보지 선정은 원천부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신매·동료의원 여러분, 50일간 최선을 다해 수고하신 도청이전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셔서 어떤 선택을 하여야 경북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셔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진상조사 결과 의혹 해소도 못한 채 시간에 쫓기듯 도청이전지를 결정하지 말고 소신있게 도민의 편에서 판단

» 한혜련 의원(통상문화)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5분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형언할 수 없이 반갑이 교차하는 바입니다.

지난 24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배·동료의원들에 의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60여 일 동안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3백만 도민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공정한 진상조사 환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황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11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위의 이같은 헌신적인 노고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평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서 거부하여 특위환봉이 중단되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청이전 결정과정에 있어서 특정지역으로의 의도적인 몰아가기는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대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를 애써 모른체하고 부시하며 서둘러 도청이전 결정을 마무리 지으려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집행부 관계자는 "도청이전 조례 제정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도청 이전작업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발언하여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덮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인사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에만 의거하여 과열유치 행위에 간섭을 적용 않기로 한 것 등은 처음부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조례에 규정한 직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도청이전이 이처럼 원칙 없이 추진되고 만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겠습니까? 이는 300만 경북도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나 할 것이며, 이미 결정된 도청이전 결정지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지역이기주의로만 매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제기에 대해, 특히 11명의 추가평가위원의 점수편차 의혹 등에 대해 시종일관 우연의 일치였다는 식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을 우리는 정말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에서 가장 진지하고 소신있게 도민의 편에 서서 세상을 읽고 높은 길로 인도하는 열린 도정의 책무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는 바로 역사의 증언에서 읽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삶의 자국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는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관광지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지역민이 볼 수 있도록 게양 건의

» 안 손 덕 의원(통상문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국가는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얼굴입니다. 국기 속에는 그 나라의 상징과 사상과 정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기를 게양하는 일은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 고맙게 살고 나라를 지키자는 의지와 국민된 도리로서 애국의 충정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10월이 되면서 각종 행사가 지역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사참석에 분주하셨을 줄 믿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얼굴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봉화 청량산을 다녀왔습니다. 봉화 청량산 주차장에 전국에서 온 한 100여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도내 시·군 단위 청사 입구나 종합운동장, 또 그런 규모가 큰 관광지 등의 전신주... 제가 비교하는 건 전신주 크기의 높이와 국기 게양대를 우선 설치를 하고 그에 걸맞는 규격의 태극기를 게양을 해서 사계절 하늘 아래 펄럭이는 태극기를 지역민들이 쫓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는 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읍·면·동이나도 동사무소는 아니지만 면·읍 소재지에 들어가는 입구 정도에는 그러한 것이 설치가 필요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남 종 식 의원(정승) 농수산위원회

질) 주세법에 의하면 주류제조허가 권한이 국세청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건의할 의향은?

답) 주류제조 및 판매는 주세법 제6조에 의해 국세청이 허가하고 있으며, 주류산업은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수축산업화의 전망 있는 전략산업으로서 다양한 육성정책이 필요함.

따라서 주류제조면허 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될 수 있도록 주세법의 개정과 주류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대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질) 비료값 및 유류값 인상에 따른 농수산업 경영생산비 증액분을 보전해 줄 현실적인 대책과 의향은?

답) 비료 및 유류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대폭 상승에 따라 유류 및 화학비료 가격은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

비료는 전년 대비 평균 62.9%, 벼세유는 전년 대비 평균 75% 인상 지금까지 추진한 대책은 2008. 12월 말까지 정부, 농협, 업체에 시 인상분의 70% 한시적 지원하고 있으며,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242천톤 - 270천톤) 하였음.

또한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 농가 벼세유 공급량 확대 등 안정적 농자재 수급을 위하여 농식품부, 국회 등 다방면에 대책을 건의함은 물론 고유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벼세유류 연동 보조금 지급하고 있음.

앞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비료인상분의 70%를 계속해서 지원토록 중앙에 건의하고 청보리,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 확대로 화학비료 절감과 지력증진 유도하고, '08. 7. 1부터 1년간 지원하는 벼세유를 계속해서 지원토록 건의하는 등 지역신청을 감안하여 시설휘에 고유성 작물을 저유성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질) 농협의 농기계은행 운영사업과 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상호보완 및 조화로운 병행에 대한 대책은?

답) 우리 농업의 현실은 한미 FTA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 유가 및 원자재값 급등,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갈수록 심각한 실정임.

우리 도의 주요 농기계 10종의 보급률은 전국 농기계 대수의 22%대로 최고 수준에 이르며 특히, 이앙기, 트랙터, 경유기 등은 전국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적극 추진하고 있음.

농협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금년말부터 1조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은행사업" 새롭게 추진한 계획임.

이 두 사업은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부담을 줄여 준다는 목적은 같으나,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형농기계 위주이고 "농기계 은행사업"은 농협을 통하여 버농사에 필요한 대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중복, 충돌하기보다는 임대 농기계의 종류나 대상, 형식 등에 있어 상호보완적인 관계임.

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설립조건을 강화하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할 의향은?

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난로 증가하는 노인요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지역간 균형선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사업 선정시 고려사항으로는 시설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 지방비 확보 능력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중소병원, 이동양육시설, 폐교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노인요양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음.

앞으로 시설선치기준이 전문요양시설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한 기존 일반요양시설의 증축, 개보수사업 중점으로 추진하되 무분별한 사업의 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시군의 시설 증축율 및 해당법인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여 추진하겠음.

질) 올 겨울 유가폭등에 따른 경로당 연료비 지원대책은?

답) 우리 도의 경로당 현황은 총 6,724개소로서 시 지역이 4,125개소, 군 지역이 2,599개소로 1일 이용인원이 23만명 정도임.

경로당에 지원하는 내용은 운영비 및 연료비가 1개소당 원 1,220천원이며, 특별연료비(동절기)가 개소당 원 700~850천원이 지원되고 있음.

경로당 연료비 지원 대책은 경로당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과 1사 1단체 지배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경로당의 보일러 등 시설 확성을 개보수할 계획임.

질) 의용소방대원 임용권 일원화에 따른 예산지원 및 사기진작 방안 강구와 노후 119구급차량 교체로 응급환자의 불안감 해소대책은?

답) 의용소방대 임용권이 도로 인위화됨에 따른 군 지역 예산지원 방안으로 의용소방대 기본생비(충동수당, 장학금, 피복비 등)를 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충동수당 등 일부를 시·군 지원토록 예산 반영 회조 요청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충동에 비례한 수당지급, 자녀장학금 등 지원, 모범대원 표창 및 연수 확대, 전문교육 실시, 기술경연대회 개최하겠음.

또한 노내 구급차량은 총 129대로 이중 화물개조형 76대, 승합차 개조형 53대이며 내용연수(5년)를 경과한 구급차량은 현재 15대 보유하고 있음.

노후 119구급차량 교체로 응급환자의 불안감 해소방안으로 2008년도에 구급차량 15대(신규·교체)를 승차감과 주행성이 양호한 승합 개조형으로 기 구입 또는 구입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존 화물개조형을 승합개조형으로 교체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2008년 8월 28일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 순 덕 의원(의성) 통상문화위원회

질)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및 실버타운 조성계획의 추진상황과 대책은?

답) 우리 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39만명(14.6%)으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일한 능력 없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특히, 노인전문요양병원 확충,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보건·복지·생활·문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우리 도 의성군을 비롯한 전국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유퇴노인복지타운은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시 유퇴노인을 농촌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정주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6일 유퇴노인 복지타운 조성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달에 사업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임.

질) 낙동강 토속어종산업화센터 건립계획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대책은?

답) 낙동강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는 의성군 낙동강 수계에 2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 66천㎡ 규모의 생태양식장, 생태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임.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속어종산업화센터 건립 지원을 해양수산부 건의하여 해양수산부에 현지답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도에서는 토속어종산업화센터 추진협의회 개최하였음.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부진한 사유는 '08년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채택되어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732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었으며, 향후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2008년 8월 29일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손덕임 의원(비례) 기획경제위원회

질) 독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에 지원책을 촉구하여야 하며, 가칭 독도의 영유권보장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견해와 독도관련 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된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책은?

답) 우리 도는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해양경복의 비전과 지방외교를 선언하면서 「독도수호 지구상」을 발표하고, 실질적 지배를 위한 정주기반 구축 및 접근성 제고, 지방외교역량강화, 독도 연구·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일부의 독도 도발 행위에 「독도수호대책본부」 설치, 「해외 독도수호지분위원회」 위촉 등의 대응과 도의회 차원의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설치 등 독도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려 왔음. 「독도수호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독도의 유일화와 영토관리 강화를 위해 독도가을 조성, 어업인 대피소 및 접안시설 확장, 동시도 연결 방파제 건설 등을 추진하고 독도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독도 해양과학기지 조성,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교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독도수호 전시기지로서의 울릉도 개발을 위하여 경비행장 건설, 인주도로 개통 추진, 사동항 개발 등 접안 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음. 독도종합대책 실천을 위하여 독도수호 특별예산 1조 8,536억원을 정부 및 국회에 요청 중이며, 정부하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참여하고 독도관련 규제위원회를 건의하고 가칭 「독도의 영유권보장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아주 적절한 입법 조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독도의 영구적 지배와 종합적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와 같이 우리 도의 독도정책은 보다 냉정하고 성숙한 자세로 미래지향적이고 신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독도영유권을 더욱 공고히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음.

질)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펼친 지방외교 성과와 향후 지방외교의 방향은?

답)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의 7%, 수입액의 16%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펼친 지방외교 성과로는 일부과의 교류확대를 위하여 호쿠리쿠 지역 및 큐슈지역간 한일경제교류회의 3회 개최와 일부자치단체국제화학회(CIAR)를 통한 일부 자치단체공무원초청사업 3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운영, 국제단체 가입·활동 및 한인회 등 재일동포 지위향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향후, 지방외교의 방향은 영토문제 등 어려운 국내외 정세에 직면하고 있으나, 신뢰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도와 여건이 유사하고 실질적 교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지방외교의 역량을 가일층 강화하겠음.

질) 한우최고기 유통과 관련 생산농가에게는 희망을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는 한편 국내는 물론 수출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우산업 육성 대책」과 한우산업육성대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확보 대책은?

답) 한우 사육 현황으로 전국에 184,730호에 2,276,223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39,957호(21.6%)에 528,068두(23.2%)가 사육되고 있음.

한우산업 육성대책 수립은 '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에 따라 농가 및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우산업 육성대책(안)을 마련하여 5월 9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북농어업 FTA특별대책위원회 산하 한우대책7개팀에서 5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7차례 검토와 협의를 거쳐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 등 재원확보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세부추진사업으로는 경북한우고기의 차별화 및 명품화, 식육 워산지 표시 및 직거래 인프라 구축, 우량송아지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사료기반 획기적 확충, 축산농가 부양 성장을 위한 축산시설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경북농어업 10대 프로젝트 보완 발전대책은 한(한)FTA에 대비하고 경북농어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역농어업에서 비중이 큰 쌀과 사과, 한우, 친환경 등 핵심 10대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으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와 곡물가격 급등 등 국내외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경북농어업 10대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현안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경북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어업 중장기(2020)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과도 연계하여 상호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2008년 8월 29일 제 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채 옥 주 의원(비례) 교육환경위원회

질)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조례가 일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답)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육조례는 대부분의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는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급년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향후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할 계획임.
또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법인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난 개정되어 평생교육업무가 도교육청에서 도지사로 이관되었으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독립 휴양림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였음.향후 의원발의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울릉도 개발과 함께 공공 하수처리시설과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답) 울릉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부진한 것은 먼저 계획처리인구를 감안한 하수 발생량 증가를 사전예측하고,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단계별 계획,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임.
앞으로 울릉도개발에 따른 동해안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 3월 울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환경부 등 중앙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생활하수와 축산 오·폐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청정 동해안 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십자형 콘크리트 인공어초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환경오염 등 문제점은?

답) 백화현상(갯녹음) 발생 현황은 '92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96년 우리 도에서 발생하여 1.31ha에 걸쳐 발생되었으며, 현재 강원도 북방 한계선까지 확산된 실정으로 발생원인은 수온상승, 환경오염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수산과학원에서 추정하고 있음.
십자형 인공어초의 오염 우려는 콘크리트로부터 용출되는 중금속(카드뮴, 납, 크롬)이나, 수산화칼슘 같은 강알카리성의 화학적 오염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 발표에 따르면 콘크리트 어초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용출물은 0.001ppm 이하 미량으로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허용하는 0.1ppm 이하이고 수산화 칼슘 용출량은 pH8.6 이하로 정상적인 해수 유동 환경에서는 생물시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질) 적조현상 방지를 위한 황토살포에 대해 투자대비 효과를 중간평가를 해보고 방식을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답) 적조 현상은 해상에 시식하고 있는 플랑크톤이 일시에 다량으로 증식되거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조현상 구제방법은 화학적 방법, 물리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경제적 효용성이 낮아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적조구제 물질로 황토를 사용하는 것은 황토 구성물질이 주로 규소, 알루미늄, 철분, 마그네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연물질로 생태계 및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수산전문연구기관의 견증을 거쳤으며, 황토는 지금까지 개발된 적조 구제물질 중 가장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 물질이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에 있는 물질임.

앞으로 적조가 급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육상오염원 저감을 위한 폐수분노 처리시설 확충 등 적조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 지역발전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건립도 추진해야겠지만 이에 따른 산림훼손 및 금강소나무를 보존 대책은?

답) 우리 도에서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년 동안 태양광 발전소는 52건이 허가되고 21건은 허가 중이며, 풍력발전소는 5건이 허가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에 따른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지에 대해서는 생태축 단지를 방지하고 자연생태 보호를 위해 주능선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가급적 위험보존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금강소나무 위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산지전용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귀중한 경북의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 산림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림개발 등 신산림서비스산업의 육성 방향은?

답) 우리 도의 산림어건은 경북은 전체면적 중 약 72%로 야생동물 및 식물종의 70%가 서식하고 있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위치한 산림자원의 보고입니다.

산림산업은 관광, 의료, 교육, 생물·바이오 등 신성장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 전략산업으로 민선 4기 도정에서 동해안 해양수산·낙동강·백두대간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그 중 '백두대간 프로젝트'는 북부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설과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조성해 국민친화적인 산림·휴양·관광 개발을 위한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경북전체 산지의 81%를 차지하는 보전산지의 비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과도한 산지구제 완화 및 제도를 개선하여 백두대간 프로젝트를 통한 산림자원을 친화성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만학생 관리대책과 향후 소득계층과 비만학생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추진할 의향은?

답) 먼저 도내 각급 학교 비만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12.7%, 중학교 13.8%, 고등학교 14.6%로써 도내 평균 약 14%인 5만 3,156명이 비만판정을 받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비만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학생의 전반적인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비만학생 상담, 식이 및 운동요법 등 비만관리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금지, 트랜스지방 섭취제한과 적정량의 칼로리 제공 등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관리를 강화하는 등 학생 비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비만학생에 대한 관리는 전체 비만관리대책의 초기 단계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계층과 비만학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증은 위한 실증연구 및 대책수립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 최근 일부 학교 등에서 노출된 결핵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답) 현재 결핵에 감염된 학생은 8월 26일 현재 21개교에서 26명이며, 2007년도에는 40개교 59명이 발생된 바 있으며, 이는 대부분 고등학생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학생결핵 예방관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핵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 전원에 대해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 지부와 협의하여 매년 X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평상시 심한 기침이나 가래 등을 뱉는 학생 발견시에는 2일 이내로 귀한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또 전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결핵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29일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장길화 의원(비례) 건설소방위원회

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관련하여 법인 소속의 전문요원은 전무한 상태로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지, 지금까지 1천459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성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사업과 경주타워의 이미지가 겹칠 우려는 없는지?

답)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경상북도의 역사유적과 관광자원을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고 나아가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98년 첫 행사 이래 다섯 차례 성공적 개최를 통해 문화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 및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노하우 축적이라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이러한 발전과 성과 뒤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육성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문화엑스포 인력유용은 행사 개최시와 평상시에는 인력유용 편차가 큰 만큼 재단직원은 행사전반의 기획, 실행, 홍보를 전담하며 파견 공무원은 공익시설 유지·관리와 행정지원 업무만 분담하고, 향후 엑스포의 역량 제고를 위해 문화기획전문가, 전문경영인 등 전문가 확보와 직원들의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향후 독자 경영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음.

예산지원의 투명성은 먼저 예산지원의 이중구조 사례는 초기에 엑스포 행사장 기반시설 확충 등 다소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관광 산업진흥부부를 담당부서로 인위화하여 공익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 지원함으로써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고 있음

엑스포 경영효율화 방안으로는 전문가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로 입장수익을 증대시키고, 엑스포와 민간기업간에 합작사업 발간로 수익사업을 다변화하며, 행사규모의 내신화로 비용을 절감시키고 매년 지원되는 예산을 축소 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독립경영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음.

경주타워와 문화센터의 건립은 찬란한 신라문화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건립하여 문화엑스포를 랜드마크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경주타워와 문화센터의 랜드마크로서 가치에 대해서 건축물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이색적인 디자인으로 건축물 자체로서 값어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쇼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음.

디자인의 배성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유감화 하여 외관은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로빈클래스를 안시 하는 유리를 외장재로 하여 동시양 문화교류의 의미를 담고 있음.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황룡사 9층탑 복원과 중복성에 대하여는 9층 목탑은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최대한 원형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경주타워는 양각과 유감, 과거와 현재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재해석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 경상북도개발공사는 1997년 설립하여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 매립 등 그동안 괄목할만한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관광단지·리조트·휴게소사업, 아파트 임대·관리사업 등 사업범위가 문어발식 경영으로 보임에 따라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기구인력, 이사회, 추진사업, 재산관리, 역도팀 운영, 부채현황 등 경영전반을 재정비할 의향은?

답) 개발공사의 사업범위는 '97년 공사설립 이후 관련법령 개정 및 대상 사업 조정으로 인하여 시대변화에 맞게 사업범위를 조정 운영 하고 있으며, 조직은 1실, 1단, 8부에 정원이 65명, 현원 63명, 이사회가 9명이며, 현재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택지개발 5, 산업단지조성 4, 골프장조성 1, 위수탁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환경 변화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정을 검토하겠음.

이외에도 국·지방도변 휴게소 운영현황으로 한터휴게소, 분성새재휴게소, 시라벌광장휴게소로 3개소이며, 이중 분성새재휴게소와 시라벌광장 휴게소는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중에 있으나 최근 경제상황 등으로 애로가 있음.

개발공사는 사회공헌 및 지역 우수체육인 육성을 위해 '00년도에 도체육회로부터 역도팀을 인수·운영 중에 있으며, 선수 7명 감독 1명으로 연 운영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도 및 개발공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한편 도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 제공과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구미 옥계에 700세대, 성산 백천에 6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구미 옥계 360세대는 '07년 분양전환 하였으며, 아울러 영천 친환경에너지사업 추진위원회의 건의와 영천시 요청에 따라 청동지역에 레저수요 수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39천㎡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 및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골프장사업의 실행에 대한 우려에 따라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또는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질) 건설도시방재국과 종합건설사업소, 이관예정인 국도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북개발공사와도 통합하는 종합건설본부 설치에 관한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답) 경북개발공사와 합쳐 종합건설본부로의 기구 설치는 먼저 개발공사는 도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으로 택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적 기능과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인 건설도시방재국과 종합건설사업소는 대부분 도시토목 및 도로건설과 소도읍 육성,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수해상습지개선, 하도조성 및 소하전정비,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양 기관은 사업목적과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어 양 기관을 통합하여 별도의 "종합건설본부" 설치는 현실적에서 어려움이 있음. 향후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과 관련 국도유지 관리업무의 이관에 대비하여 정책수립 기능과는 별도로 현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통합을 검토한 T/F팀 구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질) 교육감 선거시 공약사항 실천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과 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방법, 또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활용방안은?

답)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5대 기본과제와 4대 참 공약, 그리고 86개의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전 부시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먼저 전국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 교육청, 전국 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 1등급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교육격차 해소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난치병 학생 돌기 사업과 소규모학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구미 12개 학교, 포함 9개 학교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968개의 학교도서관이 설치하고 독서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영어공교육 강화 부문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별 영어체험캠프장을 건립하고, 영어체험학습장을 개원하였으며, 지역 교육청에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되 문화적 소양과 인성을 쌓는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겠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인기 내 공약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농산어촌 학교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과 외국어교육 어리닝,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 등이 있으며,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해 소인수 학급의 실정에 맞게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방법으로 학력신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교과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원격 학습을 제공하고, 인접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수월성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속에 내재한 소질, 적성, 능력을 파악·개발하여 인재의 핵심가치인 창의성, 리더십을 신장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 영재교육, 창의성 교육,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평등교육은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 학급 만들기,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교육 활동비 지원 등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에 교육력을 모으고 있음.

사교육비 절감과 학습부진학생 및 우수학생을 위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도 76%로 많이 늘은 편이며, 상하위 수준별 학생들의 사회보충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준별 프로그램은 2,606개를 운영함으로써 우수학생은 사회학습 지도, 부진학생은 보충학습 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및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있음.



2008년 8월 29일 제 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영식 의원(예천 농수산위원회)

질) MOU 체결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지표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답) 우리 도에서는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투자정보네트워크 구축하여 투자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웅진폴리실리콘, 소디프신소재, IG디스플레이 등 4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 거양을 거두었으며, 최근 확정된 포항, 구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구·성북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임.

한편 지난해까지 직접 MOU를 체결한 23개 기업 중 현재 가능 중인 13개 기업이 고용인원 4103명 중 해당 시·군 주민 고용률이 62%로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업유치 성과에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투자유치 MOU 체결 이후 실질적인 투자까지는 공장 건립 등 1~2년이 소요되고 과거와 달리 첨단기업들은 자동화 설비로 투자금액에 비해 고용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임.

앞으로 투자유치확대 노력 등 지역경기 활성화대책은 유치기업에 대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위해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도정의 제1목표인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질) 경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전략은?

답)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해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출향기업인 등 지역연고기업 수시 접촉 등을 통하여 수도권에 분사를 둔 현대모비스, 이엔씨전선, 웅진폴리실리콘, GS칼텍스, SIX솔라 등 2조원 상당의 기업을 유치하였음.

수도권기업의 신적이 타 자치단체보다 저조한 것은 전국 동일 수준의 보조금 지원혜택과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 성향 때문에 강원, 충북, 전북 지역으로 편중되었으며,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른 기업들의 이전철회 및 귀향 때문임.

도내로 이전한 기업에게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사유는 일부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시·군의 지방비 부담(50%)을 고려하여 부지 안내, 진입도로 개선지원 등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며 지난해 영천지역으로 이전 결정한 (주)세미머티리얼즈, 동명통신(주) 등 2개 기업은 지원요건에 부합하여 국비 680백만원을 지원 신청 중에 있음.

향후 수도권기업 이전 확대를 위하여 우리 도 주력산업인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저위험고 특색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맞춤형 인력양성 등 수도권 기업에 맞는 기업환경을 조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질) 경상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한 시·군별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은?

답) 경상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6년에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07~10)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은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복지 수요가 많고 재원확충이 가능한 시·군에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질) 당초 계획 대비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차별 추진실적이 미흡한 원인과 대책은?

답)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실적은 지역이동센터, 부상보육확대사업 등은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였으나 치상위계층 자녀 교육비, 장애인 광역이동권 구축사업 등 일부 사업은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함.

이들 사업이 지원된 것은 당초 예측의 부정확성과 중앙정부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신국 및 중앙부처와 협조하여 치밀한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겠음.

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사업내용과 추진내용이 다른 이유와 계획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향상 방안은?

답)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지역사회회의체 역량강화사업과 지역복지전담체계 구축지원사업, 복지관 신축 등의 사업이 당초 계획과 추진 내용이 다른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된 중기계획이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따라 다소 상이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추진하는 직원들 역량 강화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아울러 도에서는 급변하는 복지패러다임에 맞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질) 상습침수지역 사업이 늦게 진행되고 시·군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답)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시 상습 침수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승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늦고 시·군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사업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침수면적의 규모가 큰 지구, 방제시설이 정비된 지구, 농업진흥지역 내의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9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군특회계 사업에 포함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면서 시군의 군특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타 사업에 비해 후순위로 지정되고 시군별 군특사업비 배정도 일정치 않아 시·군 간 차등 발생하고 있음.

질) 농기계수리인력 양성과 여성농업인의 농기계운전조작에 대한 교육이 저조한 이유는?

답)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03년까지 매년 1,000명씩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수요자 급감으로 '04년부터 중단되어 '06년부터 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등 농업인교육은 행정 노력식 교육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기계교육은 농업인의 편리 증진을 위하여 시·군센터에 산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하여 간단한 운전조작과 보물관리 위주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음.

질) 한방산업진흥원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답) 일련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대구경북한방진흥원이 2006. 8. 7 설립되어 아직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소방공직원을 비롯한 시·군 공직자의 비리사건 등은 사법기관 고발로 적발되었으며, 도에서는 감사수요 대비 감사인력 한계, 사법권(수사권) 및 계리추적권 등 실질적인 감사권의 부재로 완벽한 공직비리 사전 차단에 다소 미흡하였음.

질)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관실을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할 의향은?

답)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헌법기관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도 감사관실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로서 시·도지사 소속 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규상 감사관실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부재로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

공직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명실상부한 부패 Zero, Clean 경북 실현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대책 기본계획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활동 강화, 일상감사 및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질) 경상북도내 초등학교의 냉방 개선율이 낮은 이유와 냉방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이 없는지?

답) 현재 우리 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58% 중학교 67.2%, 고등학교 79% 정도 냉방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아직까지 냉방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교실은 2011년까지 매년 200여씩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냉·난방시설률을 높여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냉방개선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은 우리 지역은 면적이 넓고 농어촌 지역이 많아 향후 통폐합 대상인 학생수 5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산재되어 있어 타 시도에 비하여 냉방개선율이 낮으며, 앞으로 하절기 평균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학교의 통폐합 여부, 학생수 증가 등을 감안하여 냉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질) 전체 학생수가 많은 교육청보다 학생수가 적은 교육청에서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수가 많은 이유는?

답)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학생의 구제를 위하여 특별지도반, 방학중 기초학력 튜트캠프, 또래학습도우미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부진학생의 구제비용이 지역교육청간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가정환경의 차이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줄 수 없는 결손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학생수가 많은 일부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다른 교육청의 학습부진학생수보다 적은 것은 지역사회의 문화조건 및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력한 학습부진학생 지도대책 및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 향후 전체 교육청의 우수사례로 개발·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음.



의장단 Chair Group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당선 등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



이상천 의장(포항시, 한나라)은 8월 13일 인터블고호텔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지식기반산업의 중심과 지역경제 진흥의 신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으며, 8월 15일 독도에서 독립유공자 및 독도 관련 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3주년 광복절 및 제80년 경축행사」에 참석하여 최근 일본의 도발과 역사왜곡에 맞서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독도 침탈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8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상천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상천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사회교과서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를 채택하였다.

9월 25일 포항 청송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과제를 협의하였으며, 9월 30일 영천에서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강화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힘써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10월 3일 영천시민운동장에서 생활체육동호인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300만 도민의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10월 16일 군위 생활체육공원에서 풍물단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제17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제」에 참석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 놀이인 풍물의 활성화 및 주변을 획대하여 전통문화의 전승·보전으로 문화경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10월 17일 영주 서천둔치에서 개막된 경상북도식품박람회에 참석하여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북 지역의 대표식품을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10월 23일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북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21세기 환동해권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임을 선포하였으며 이에 앞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송선인 독도함을 방문하여 독도침탈 및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야욕에 맞서 굳건한 국토수호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9월 4일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서 가진 「포스코 발전용연료전지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우리 도가 차세대 에너지산업 베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9월 9일 대구 EXCO에서 여성학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역여성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10월 13일 군위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한바탕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도내 소방대원 전체가 모인 이 자리가 화합과 새로운 다짐의 장인만큼 한바탕이 되어 즐거운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우리 도 의회와 전국 의회를 대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창업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경제인들을 격려

이상호 부의장(경주시1, 한나라)은 9월 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열린 「제34회 전국 품질분위조경진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의 품질분위조 활동을 확산시켜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9월 6일 경주 왕코드호텔에서 열린 「영·호남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교류행사 개최식」에 참석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자고 당부하고 결혼 이민여성 및 그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이어 9월 18일 EXCO에서 펼쳐진 「2008 대구·경북 소상공인창업박람회」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창업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10월 3일 경주 나지레원마당에서 「사회복지법인 나지레원 08 한마음 가을운동회」에 참석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과 호흡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김응규 부의장(김천시2, 한나라)은 10월 2일 영덕 삼시해상공원에서 거행된 「경북지구 이북도민 제3회 망향제」에 참석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실항민의 애환과 고통을 위로·격려하고 이어서 10월 6일 김천시 (구)어모초등학교에서 장애인과 가족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16일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제29회 한지팡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시각장애인의 애로사항 청취 및 중증장애인들의 자활의지에 대한 격려와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어 10월 17일 김천에서 치러진 「2008 경북과학축전 개막식」에 참석하여 자나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마인드를 통한 사고전환으로 21세기 지식·기술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회 홈페이지 안내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주민 고객 서비스 만족과 의정활동 정보제공을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친숙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연중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council.gb.go.kr>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도민의 소리



관광객들에게 달라진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홍보



고우현 의원(분경시2, 한나4)은 8월 2일 분경재에서 개최된 「제2회 분경칠석 차 문화제」에 참석하여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분경 동보초등학교에서 열린 「2008 분경오미자 축제」에 참석하여 오미자수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달라진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였다.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치하



권영만 행정보건복지부위원장(봉화군2, 한나4)은 10월 15일 봉화군 내성리 체육공원에서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지난 7월 26일 집중호우때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0월 19일 석포초등학교 내현분교에서 석포면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천 단풍축제 및 석포면민 등반대회」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가 지역사랑 정신을 마음깊이 새기는 결의의 장이 되고 즐겁고 보람찬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대 초청특강에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



권인찬 의원(안동시1, 무소속)은 10월 10일 낙동강변 둔치 체육공원에서 새마을회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 안동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새정신 새나라 만들기 운동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10월 23일 안동대 인분대 강당에서 인분대학 학생회 초청으로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영덕자율방범대 체육행사」에 참석, 영덕군민의 파수꾼임을 강조



김기홍 건설소방위원장(영덕군1, 한나4)은 8월 29일 영덕문화체육센터 특설씨류장에서 열린 「2008 경상북도 씨류왕 선발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민속의 고유한 씨류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신속확보가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9월 4일 장사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제2회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 유악회」에 참석하여 이번 유악회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군인들의 영혼을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9일 열린 「영덕자율방범대 체육행사」에 참석하여 자율방범대야말로 아무런 대가없는 자원봉사로 진정한 영덕군민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강조하였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구미농업을 위하여 노력하자고 당부



김대호 의원(구미시4, 무소속)은 11월 8일 신산읍 흥훈탑에서 마을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 신산읍민 한마음-걷기대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한마음 행사가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1월 11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여 더 좋은 구미농업을 위하여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이재민 및 피해농가를 위로·복구작업에 동참



김만용 교육환경부위원장의성군1, 한나4)은 지난 8월 의성지역에 내린 기습폭우로 옥산면과 사곡면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이재민 및 피해농가를 위로하고 복구 작업에 동참하였으며, 아울러 피해복구에 나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들을 찾아 격려했다.

또한 10월 21일 포항공설운동장에서 재포항 의성향우에서 주관한 「의성 고향농산물팔아주기 행사」에 참석하여 고향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미를 부탁하고 의성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수화발표회 참석, 농아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약속

김수용 의원(영천시2, 한나라)은 10월 19일 영천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총동창회」 행사에 참석하여 영천초등 관계자들과 환담과 개교 100주년을 축하하였다.

또한 9월 28일 영농교 교수부지에서 청년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연합회 한나우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영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며 강조하였다. 이어 10월 18일 「제3회 영천수화발표회」에 참석하여 농아인들의 권익 및 복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였다.



토론회 참석, 시민들이 물에 대해 고통받지 않도록 구심적 역할 당부

김숙향 의원(비례대표, 민주노동당)은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북지역노동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물 사유화·시장화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토론회」에 참석하여 물의 사유화·시장화 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구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0월 11일 포항시 분화예술회관에서 장애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경북도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분화제」 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개발사업보고회에 참석,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김영기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청송군1, 한나라)은 9월 19일 청송읍사무소에서 달기원역권 5개리 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달기원역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보고회」에 참석하여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9월 30일 진보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진보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온 주민들을 격려하고, 같은 날 청송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등이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송초등학교 가을운동회에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미래를 씬어질 훌륭한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4회 군위이로운 농산물 축제」에 참석, 관계자들 격려

김영만 농수산위원장(군위군1, 한나라)은 10월 6일 군위생원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회 군위이로운 농산물 축제」에 참석하여 우수 친환경농산물 판매회로 음면별로 우수 농산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공동브랜드인 e-로온과 군위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지역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공동브랜드(e-로온)의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주분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LG투자 감사음악회」에 참석,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

김영택 건설소방부위원장(구미시3, 한나라)은 8월 17일 금오산에서 열린 「LG디스플레이 1조 2천억 투자 감사음악회」에 참석하여 이번 음악회는 구미시민이 보여준 기업사랑 실천운동으로 인하여 보답한 투자로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계기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9월 27일 구미농락공원에서 다분화 가족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다분화 가족 음식 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10월 6일 「제17회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체력 증진 및 화합의 어울림 행사를 가졌다.





농업인가족체육대회 참석,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FTA를 헤쳐나가자며 격려

김지수 의원(성주군1, 한나라)은 11월 3일 가야산관광호텔에서 지역 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 장애인 한바우 캠프」에 참석하여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 나갈 때 밝은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11월 4일 성주 성밖숲에서 농업경영인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인 가족 체육대회 및 우수농산물 비교전회」에 참석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해 FTA의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자고 하였다.



「2008 민족통일 전국대회」 참석, 회원과 관계자들을 격려

김종천 의원(영주시1, 한나라)은 9월 26일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민족통일회원 4,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 민족통일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순수 민간주도로 남북한 통일 사업에 수고하는 회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0월 13일 국민체육센터에서 노인대학 학생 등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회 영주시 노인대학 연합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경보효친 의식의 고양효과를 높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10월 27일 「6.25 참전 유공자회 총회」에 참석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참석, 여성지도자로서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 당부

나규택 윤리특별위원장(고령군2, 한나라)은 8월 4일 고령시장 판매장에서 씨름선수 등 40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고령군 씨름왕 선발 및 제10회 협회장기 씨름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선수들에게 힘과 기를 다해 정장당당하게 승부를 펼쳐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8월 25일 고령군 내기야곡약당에서 열린 「제17회 농업경영인 고령군 연합회 행사」에 참석하여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10월 2일 「경상북도 생활개선회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여성지도자로서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8 청송문화 사과축제』 참석, 농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에 매진하자고 강조

남종식 복도수호특별부위원장(청송군2, 한나라)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청송읍 송생리 청송민속박물관 사과공원부지에서 개최된 「2008 청송문화 사과축제」에 참석하여 전국 으뜸 농산물인 세계적인 명품청송사과의 우수성을 내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청송의 농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에 우리 모두 매진하자고 강조하였다.



노인회관 준공식 참석, 평생복지시설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박기진 의원(성주군2, 한나라)은 9월 12일 「노인회관 심터 준공식」에 참석하여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복지시설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0월 2일 「성주군 노인장수대학 수료식」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조기건강검진을 당부하였다. 이어 10월 14일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앞으로 마을회관을 지역주민이 더함께 모여 정담을 나누는 화목의 장으로서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이축제』 참석, 봉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당부

박노욱 농수산부위원장(봉화군1, 한나나)은 9월 27일 자연의 향기 ~ 봉화송이와 함께 나는 주제로 개최한 「제12회 봉화송이축제 및 제27회 청량분화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에 힘써 봉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주를 방문한 유럽연합측 27개국 대표단 영접

박병훈 의화은행부위원장(경주시2, 한나나)은 10월 22일 2008 한-유럽 차세대지도자 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경주를 방문한 유럽연합측 27개국 대표단을 영접하고 천년고도 경주역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또한 10월 23일 「대구경북 출신 CEO행사」에 참석하여 고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향발전을 위해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한데 이어, 경주 유년진흥분화 사업행사인 「기보연」 행사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였다. 이어 10월 24일 「경주시장기타기 학생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지역사회발전의 주역이자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참석,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농업발전 당부

박순범 의원(칠곡군2, 한나나)은 10월 30일 왜관공탄운동장에서 농업경영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회 칠곡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농업경영인의 노력과 열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농업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22일 왜관읍 공영주차장에서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칠곡 사랑의 집 준공식」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시설에서 무료 급식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청도지역 오피니언리더 초청 포럼』 참석,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당부

박순열 의원(청도군1, 한나나)은 8월 9일 「제9회 복숭아시협상 연구회 퓌평회」에 참석하여 환율상승 등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지역의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9월 10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도지역 오피니언리더 초청 포럼」에 참석하여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시대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10월 10일 「청도군 어르신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오랫동안 건강하시길 기원하였다.



『제35회 대가야문화 예술제』 참석, 대가야문화 홍보

박영화 의원(고령군1, 한나나)은 8월 13일 네기야극약당에서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하여 상호간 화합으로 새로운 농촌을 일구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9월 23일 주신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성지도자 및 결혼이민여성 한마음 나누기 행사」에 참석하여 여성이여말로 21세기에 가장과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 지역사회의 원동력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10월 25일 「제35회 대가야문화 예술제」에 참석하여 외부인사들에게 대가야 문화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어업인 공청회』 참석,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방안 논의



박진현 의원(영덕군2, 한나라)은 7월 23일 고리물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 등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범도민 「손님맞이 결의대회 및 특별 관광 홍보이벤트」 행사에 참석하여 인근 빈박, 상가 등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안전·청결·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에로사항 청취활동을 펼쳤다.

또한 10월 22일 영해 예주분화예술회관에서 동해안 어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계류 시험연구조사 어업인 공청회」에 참석하여 연안지방 홍계통발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과 대계 지속 생산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양스포츠도시로서 위상제고와 아름다운 관광 울진 홍보하는 계기



방유봉 의회운영위원장(울진군2, 한나라)은 9월 1일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08년도 회원 야영교육을 겸한 「울진군4-H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9월 28일 울진왕피천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7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 군민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10월 5일 「전국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에 참석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해양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자고 강조하였다.

『KTX 김천역사 기공식』 참석, 주민간담회 개최



백영학 의원(김천시1, 한나라)은 8월 27일 「KTX 김천역사 기공식」에 참석하여 추진현황과 KTX역사 기공지역인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옥산리 790번지 일원을 둘러보고 담당자 및 관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9월 30일 김천시 자산동 주민센터(현, 성남동 주민센터)와 평화·남산동 주민센터(현, 평화동 및 남산동 주민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주민센터 운영현황을 듣고, 담당자 및 관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에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환경보전페스티벌』 참석, 환경단체 관계자 격려



백천봉 교육환경위원장(구미시1, 한나라)은 9월 24일 구미 형곡중학교에서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형곡중학교 다목적강당 개관식」에 참석하여 아직도 구미지역에 강당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10월 8일 구미시 원평1동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주민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주민들을 위한 분화복지공간 확보를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이어 10월 11일 「2008 전국 환경보전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부터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위원 연합체육대회』 참석,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



손덕임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8월 11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전문학도 충훈탑에서 학도 의용군 및 유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제51회 전문학도의용군 추념식」에 참석하여 전문학도의용군의 위훈을 기리고 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추모하였다.

또한 9월 28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첨단의료기기와 전자전기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지멘스사의 메디칼 조류파사업부 포항연구소 및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생산시설을 둘러본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10월 10일 「대구지검산하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법질서 바로세우기 한마음연합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경북북부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지원방안 토론

손진영 의원(영주시2, 한나라)은 9월 8일 안동시민회관에서 주제로 열린 「경북북부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낙후된 경북북지역의 성장동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밀도 높은 토론을 벌였다.

또한 10월 2일 영주풍기인삼축제 행사인 「인삼 아가씨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이어 10월 17일 「2008 영주신비분화축제」에 참석하여 잊혀져 가는 신비정신을 조명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하였다.



『평생학습축제』 참석,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 단합 당부

송필각 의원(칠곡군1, 한나라)은 9월 30일 왜관공단 운동장에서 농업경영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농업의 특화와 규모화 등으로 잘 사는 농촌 만드는 데 노력하자고 주문하였다.

또한 10월 17일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 칠곡평생학습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민들이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2일 「칠곡사랑의집 준공식」에 참석하여 사랑의 집이 새롭게 완공되어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인 의성연합회 체육대회』 참석,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요구

안순덕 의원(의성군2, 한나라)은 9월 19일 「제5회 난밀면민 화합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지역 민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한편, 지역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9월 23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8회 한국농업경영인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농업경영인 스스로가 농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농업도 비전이 있다고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9월 27일 「다인면민 체육대회 및 화합한마당축제」에 참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면민들의 대동단결의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민의 날 기념식』 참석, 지역이 결속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당부

윤영식 의원(예천군2, 한나라)은 9월 27일 「제11회 지보면민체육대회 및 노래자랑」에 참석하여 오곡짜과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면민의 화합과 단결,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면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10월 16일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지역주민 30,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된 도청유치 기념 「제52회 예천군민체육대회 및 제10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급변 행사를 통하여 더욱 지역이 결속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축제』 참석,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윤창욱 윤라특별부위원장(구미시2, 한나라)은 9월 25일 구미자연환경연수원에서 노인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0회 경상북도지사기 노인케어트블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승부보다는 서로간의 우정을 다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9월 27일 구미1대학 강당에서 보육시설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회 보육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보육교육에 있어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10월 5일 「제6회 이주노동자의 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이번축제를 계기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입암면민 체육대회 참석, 면민들의 화합 당부

이상용 도청이전조사특별부위원장(영양2, 한나라)은 7월 29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영양고추아가씨 전국신발 예선대회」에 참가하여 본선에 진출하는 재기발달한 영양고추 홍보아가씨 24명을 신발하고 영양군 특산물 홍보대사로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또한 8월 9일 영양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5회 영양중고등학교 동분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동분들의 화합과 우의를 통해 고향 영양에 대한 애정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지고 강조하였다. 이어 10월 7일 「제30회 입암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면민들의 화합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해양심층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동양 최대 물공장이 되길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울릉군 1 한나라)은 10월 9일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 건립하는 「해양심층수 제2공장 기공식」에 참석하여 청정해역 수심 600m 이하에서 뽑아 올린 해수로 동양 최대의 물공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열린 「제1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편안한 마음과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수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10월 24일 「2008년 경상북도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도전과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친환경 약돌쌀 생산으로 고효율적인 농가소득 기대

이시하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분경시1, 한나라)은 8월 9일 분경시 마성면 소재 솔밭에서 마을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마성솔밭축제」에 참석하여 분경의 복지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월 22일 분경읍 요성리에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분경약돌쌀 장미소 준공식」에 참석하여 친환경 약돌쌀 생산으로 고효율적인 농가소득의 기대감을 표시하며 축하하였다. 이어 9월 30일 「캐프-노벨 합작공장 기공식」에 참석하여 캐프-노벨 합작공장이 분경에서 날로 번창해 분경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경로 효친사상과 효문화의 재점화 계기

이우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산시1, 한나라)은 9월 27일 용성초등학교에서 의용소방대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회 의용소방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0월 4일 영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지역노인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이번행사를 통하여 경로 효친사상과 효문화의 재점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6일 「경산시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하여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라고 밝혔다.



국회를 방문,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면담

이재철 통상문화부위원장(상주시2, 한나라)은 9월 23일 국회를 방문하여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상주고등학교 교사동 D등급 판정에 따른 국회차원의 대책마련과 협조를 건의하였다.

또한 10월 8일 「상주동화하나 이야기축제」에 참석하여 참가 학생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 이어 읍면별 지역특화상품 판매장을 둘러보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 10월 25일 한국보이스 키아웃 경북연맹 상주지구대원 330명(회장 이재철)과 함께 예천 영주지역의 분화 유적지를 둘러 보고 그동안 봉사와 사랑을 실천해 온 대원들을 격려했다.

「감재배교육」에 참석, 품질 좋은 감생산 촉구

이종원 의원(상주시1, 한나라)은 8월 13일 상주소방서에서 개최된 「상주의용소방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그동안 상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봉사 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열정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8월 23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개최된 「상주원예영농조합 조합원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인이 FIA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9월 30일 「2008 감재배교육」에 참석하여 최고의 명품 꽃감 생산을 위하여는 품질 좋은 감생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도감 경매장 방문, 농민들도 포장 및 선별 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이준호 의원(청도군2, 한나라)은 9월 30일 청도 감 경매장인 칠성공판장을 찾아 농민의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농산물 가격 제값 받기 위해서는 농민들도 포장 및 선별 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10월 10일 북거노인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제2회 청도군어르신 새마을경로진치」에 참석하여 오늘의 풍요로움이 있게 만드신 어르신들의 높은 희생정신과 나눔사랑에 감사의 경의를 표시하고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



「재향군인회 기념식」 참석, 공로회장패 전수

이현준 의원(예천군1, 한나라)은 10월 1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모임의 회장 자격으로서 농보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이끌고 다도 신진지인 금산 인삼시장과 하평 재래시장을 견학하여 활발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10월 10일 예천 광일 컨벤션웨딩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박세직 중앙회장으로부터 재향군인회의 봉사정신을 기념하는 공로 회장패를 전수받았다. 이어 10월 10일 「씨밀레 사과 체험행사」에 참석하여 과수농민들과 사과재배 신기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에 참석, 예산안 심의·의결

장경식 기획경제부위원장(포항시3, 한나라)은 7월 3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조합회의에 참석하여 구역청 내부규정 38건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8월 11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전물화도 충훈담에서 학도익용군 및 유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제5회 전물화도익용군 추념식」에 참석하여 전물화도익용군의 위훈을 기리고 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추모하였다. 이어 9월 23일 세계적인 기업 지멘스사의 「메디칼 초음파사업부 포항연구소 및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참석, 지역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치하

장길화 의원(비례, 한나라)은 8월 22일 구미에서 열린 「도시자기 생활체육 불링대회」에 참석하여 생활체육 발전에 더욱더 앞장서는 협회가 되도록 힘쓰셨고 밝혔다.

또한 10월 10일 「제28회 경주 시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이번 시민체육대회를 통하여 지역의 통합과 안정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10월 17일 경주에서 열린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하고, 아울러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의원 동정



『토종 EM무진장 쏟아 붓기 행사』 참석, 친환경 운동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역설

장두욱 의원(포항시2, 한나라)은 7월 26일 포항시 북부해수욕장에서 열린 「포항 국제달빛 축제」에 참석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9월 21일 「제13회 포항시 의용·여성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9월 27일 「토종 EM무진장 쏟아 붓기 행사」에 참석하여 친환경 운동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제4기 군위친환경 농업대학 입교식』 참석,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당부

장병익 의원(군위군2, 한나라)은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가진 「제4기 군위친환경 농업대학 입교식」에 참석하여 군위군의 농산물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7월 24일 안동시 도산면에서 개최된 「군위군 생활개선회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생활개선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주문하였다. 이어 9월 9일 「제23기 군위여성평생교육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여성이 똑똑해지고 생활의 지혜를 얻어야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하였다.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치어방류』 참석,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

장세현 의원(포항시1, 한나라)은 8월 25일 흥해읍 복지회관에서 개최된 「포항시 흥해읍 스포터즈 창단식」에 참석하여 건강의 중요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스포터즈 단원들의 지역행사 참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9월 17일 포항 두호동 방파제에서 열린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치어방류」에 참석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고, 행사관계자와 어민들을 격려했다.



『노인위안잔치』에 참석, 노인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

전찬걸 의원(울진군1, 한나라)은 9월 1일 울진군 「41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그동안 울진군 41의 활동시합을 격려하고 회원들과 단합의 상을 함께 하였다.

또한 9월 5일 「울진군분회원 청사이전 및 준공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울진군분회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10월 17일 「울진군 노인 위안잔치」에 참석하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함께 노래자랑에 참여하는 등 격려를 하였다.



『용상시장 축제』 참석, 지역의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

정경구 의원(안동시2, 한나라)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펼쳐진 「제13회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하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세계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노력이나며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10월 8일 「제2회 용상시장 가을 대축제」에 참석하여 현대시장으로 탈바꿈한 용상시장을 지역의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10월 10일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울릉도 오징어축제』 참석, 섬지역 최대잔치인 축제로 발전되길

정무용 녹도수호특별위원장(울릉군2, 한나라)은 8월 20일부터 8월 23일(4일간)까지 울릉도 일원에서 태고의 신비 꿈이 있는 사람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제8회 울릉도 오징어축제」에 참석하여 울릉주민들의 전통분화를 꾀목시킨 오징어축제가 섬지역 최대 잔치인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행사는 오징어 맨손잡기, 호박엿 놀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에 참석, 영양고추의 우수성 홍보 및 판촉활동 전개

조동만 의원(영양군, 한나라)은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가진 「2008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기간 중 총 3억원의 판매고도 올렸다.

또한 10월 3일 「제3회 수비민민체육대회 및 경보잔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주민들에게 경보사상고취와 주민들의 건강, 도의화와 도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였다. 이어 10월 23일 「일월 민민체육대회 및 경보잔치」에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경보사상 고취와 주민들의 건강, 도의화와 도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였다.



『전국 걸스카우트연맹 전국지도자협의회』 참석, 특강

채옥주 의원(비례, 한나라)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양평 비라내캠핑에서 전국걸스카우트연맹지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국걸스카우트연맹 전국지도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국걸스카우트연맹의 활성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또한 10월 21일 포항여성분화회관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다문화가족 어울림 축제」 참석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더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 10월 27일 「저출산과 국가 경쟁력 시대에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 만들기」 포럼에 이사로써 참석하였다.



『한국여성계 대표 초청 대통령 오찬간담회』에 참석 대통령께 선물 증정

최윤희 의원(비례대표, 한나라)은 7월 16일 청와대에서 한국여성계대표초청 대통령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여성계를 대표하여 대통령에게 선물을 증정하였다.

또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상 추천으로 선발된 여고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2008 Leadership Camp “세계와 소통하는 여성”을 개최하여 50여명의 각계각층의 전문직여성들과 만나 진로지도와 Mentoring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어 BMW한국연맹(회장 최윤희) 40주년 기념 및 2014BMW세계대회를 위한 유치발대식을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변도윤 여성부 장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를 치렀다.



『경상북도-베트남 타이응우엔성간 상호교류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 안내

한해련 통상분화위원장(영천시1, 한나라)은 9월 18일 대구 EXCO에서 열린 「대구·경북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와 구직 및 창업 희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9월 23일에 「경상북도-베트남 타이응우엔성간 상호교류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데 이어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성장 일행”의 구미 세마을회관 역사관 견학을 안내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제6회 영천한약축제」에 참석하여 이번 한약축제를 계기로 한방관련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해 영천을 대표하는 한방명품을 육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경산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참석, 화합을 다짐

황상조 도청이전조사특별위원장(경산시2, 한나라)은 9월 19일 경산시장,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9회 갯바위 축제」에 참석하여 개막축하 공연 개최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0월 4일 영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노인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2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효의 달을 맞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0월 13일 「경산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과 같이하며 화합을 다졌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대구시민일보 2008. 8. 1



독도는 우리땅 만세삼창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찬)는 31일 오전 제226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의 대처하기 위해 의회에 독도관련 업무를 전달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로 결정했다. 독도특별위는 정무용(울릉)의원을 위원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의회가 각각 선출했다.

경북일보 2008. 8. 1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구성

위원장 정무용 의원 부위원장 남종식 의원 선출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찬)는 31일 오전 제226회 임시회를 열어 독도이전추진회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울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용(울릉)의원이 각각 선출했다.

위원으로는 김수용(영진), 박병훈(경주), 박순범(청곡), 박진현(영덕), 박진봉(구미), 이상태(울릉), 장길화(배재), 장무욱(포항), 장세현(포항), 전찬길(울진), 정경구(안동) 의원이 선출됐다.

울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나규덕(고령)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윤창욱(구미)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영기(경상), 박기진(상주), 백영학(김천), 손덕인(영주), 손진영(영주), 이준호(경도), 장병익(구미)의원이 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독도이전추진회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진상조사계획서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갔다.

방송특기자 yonghyon@okbc.kr

서울일보 2008. 8. 12

도청이전 추진과정 의혹 규명

경북도의회 진상조사 특위, 현장 의견수렴 활동

문봉현 기자 / 경북도의회 도청이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지난 9일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도청 이전업무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박진현(영덕)의원을 위원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위원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위원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 특위는 현장의견수렴활동과 관련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확정된 3개시를 방문했다. 세부일정은 오는 11일 영천, 포항, 경주시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천을 방문했고 12일 오전에는 안동, 오후에는 상주를 방문, 함석자로부터 의혹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했다.

상위 도청이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300백만 도인이 부여해 준 복무인 만큼 현장 의견수렴 활동에서 수렴한 의견과 자료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서류, 언론 등을 통해 수집된 각종 의혹사항들에 대해 19일부터 25일 동안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의와 답변을 통해 집중 조사해 도민들이 갖고 있는 도청이전 추진과정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신문 2008. 8. 14

한혜련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장

인력부

자신감도 있지만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는 표정이다. 지역구 출신 재선 여성위원으로 경북도의회 후반기 통상문화위원장에 선출된 한혜련(영천·시진)의원의 귀환이다. 도의회 첫 여성 상임위원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목이 쏠리



“첫 여성상임위원장 부담감 모범정치로 불식 시킬 것”

고 있어 이런 중앙감은 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포리표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여성의 섬세함이 더해지면 다른 상임위 못지 않은, 아니 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라며 “가장살림을 하면서 느끼고 실천하는 바람의정활동에 접목하는 ‘생활정치’를 선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몇보다 통상문화위원회에는 능력이 뛰어난 의원들이 배치돼 경북도의회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통상문화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투자통상, 관광, 문화사업이 통상분야로 도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측면이 많을 어떤 정책을 유도하느냐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외의 결

론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유치와 통상외교, 그리고 관광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여성 후배들에게 지방정치의 길을 터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싶다”는 그는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란 말을 듣기 싫어 남보다 한발 더 뛰고 한번 더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성 첫 상임위원장이란 부담은 ‘앞’로써 불식시켜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김삼민기자 hsm@daegu.co.kr

대구신문 2008. 8. 7

도청이전 핵심자료 제출거부

경북도, '의혹 해소위해 적극 협조' 서 돌린 입장 바꿔

특위, '녹취록 등 없다' 답변에 특단조치 경고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추진회 평가결과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의혹해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바꿔, '의혹 해소위해 적극 협조' 서 돌린 입장 바꿔, '의혹 해소위해 적극 협조' 서 돌린 입장 바꿔...



(관련기사 전문) 도의회 특위는 특위기부에 앞서 도청이전 추진 실무부담단체인 새경복회(회장 송진)의 구성, 공개위원 선출, 설문조사 발령, 김원익위원 이유 불발등과 각 평가위원 제청료, 녹취록, 자료제출 설문조사 대상자 명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11회 회의까지 지체했음을 지적 요구했다. 그러나 경북도 새경복회측은 자료제출을 미흡시원인 이날 각 평가위원의 제청료 사본과 설문조사 대상자 명단 등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 보충이라는 명목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또 도에서 이미 제출한 회의록의 전부를 기밀기회로 명시시 원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녹취록에 대해서는 '필요'이런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날 도청 제출 거부에 대해 통상조

경북도민일보 2008. 8. 13

도의회, SOC사업 확대 '팔 걸었다'

〈사회집계자본〉

의정연구, 주요시설 현지 확인·향후 연계방안 모색
서해-동해 잇는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대책 강구

경북도의회 의정연구회가 SOC사업 확대에 발 벗고 나섰다.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찬)는 임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주도한 의정연구회가 이번에는 경북의 열악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

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의회 의정연구회(회장 손진영)는 13, 14일 양일간 서·남해안권의 교량, 도로 등 주요 SOC사업과 사업현황 등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향후 경북의 SOC사업의 유지·확대와 주요 SOC사업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회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의정연구회는 최근 회장단 모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투자 1순위로 경북지역의 SOC사업의 확대가 우선순위로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제8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동안에 지역경제 기반확충을 위한 의회차원의 입법·정책적

대안 마련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의정연구회는 경북지역에 대한 국토개발의 1차행에서 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음에도 지난 10년 0C부자가 거의 정무한 실감도 높게 지적했다. 특히 국내 최대의 오지국인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시대의 연이로는데 인식을 갖고, 이번 현장확인 등을 통해 강구키로 했다.

〈사회집계자본〉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매일신문 2008. 9. 25

경북도의회가 잘 이끈 도청 '이전 갈등'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갈등이 큰 고비를 넘겼다. "이전지 결정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도의회 진상조사 특위 판단이 어제 본회의에서 認容(인용)된 것이다. 오전에 그 결정이 내려지자 오후엔 관련 常委(상위)가 도청 소재지 변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만장일치였다.

그 조례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한 법률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도청 이전지역인

각정이 많았다. 그날 20일 도의회가 특위 가동을 결정했을 때는 더했다. 7월 한 달이면 될 듯했던 특위 활동 기간이 우여곡절 속에 길어질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이 일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우리가 주목했던 대로 이 특위 가동에는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 된 측면이 있다고 하다. 탈락지역의 반발과 제기된 의혹을 염고 잘려주는 장치로 중요한 기능을 한 게

매일신문 2008. 9. 29

"도청이전 차질없게 도의회 역량 모을것"

이상천 의장 "탈락지 주민 보듬을 방안도 마련"

"예산확보 등 도청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 역량을 모으겠다." 도청이전 주수지 변경조례안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도청이전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29일



본다 도민의 화합과 통합이다. 이 의장은 "도청이전과 관련이 마무리됐지만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불평을 극복하는나가 앞으로 할 숙제"라며 "탈락지 주민의 심정을 보듬을 수 있는 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장은 "도청이전 결정과정에서 불

경북일보 2008. 10. 7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연설집 발간

전반기 개회사·행사 축사·격려사·기념사 등 수록

이상천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전반기 임기동안 경북도내 각종 주요 행사 연설문을 수록한 연설문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제8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이상천 의장 연설문집은 전반기 임기인 2006년 7월 7일부터 2008년

간사 등 주요행사 연설문을 수록했다. 총 429페이지로 구성된 이상천 의장 연설문집은 이 의장의 오랜 지방정치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읽을 수 있고, 의회주의 원리가 존중되고 경북도민과 가까이

회의장으로 연일하고 있던 이상천 의장은 5선의 도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맡고 있으면서, 지방자치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이번 연설문집을 통해 의자로서 신념과 정치철학

경북도민일보 2008. 10. 8

박익식 새경북기획단장 청도 부군수행 인사 도마에

도의회 이계철 의원 "도청이전 할일 많은데..." 행정손실 지적

경북도청 이전의 대역사를 이끈 박익식 새경북기획단장의 청도군 부군수 인사발령이 도의회 의도대로 풀렸다.

7일 열린 제2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계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박익식 기획단장의 지난 6일 청도군 부군수 인사발령문제를 지적, 집행부의 비현실적 인사문제를 질타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박 단장의 인사발령과 관련, '도청이전 진상조사특위활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것이 '도청의 도내 이전에 따른'을 둘러싼 시·군간 유치권 시점에서 박 단장을 전보하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 인사관행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산하기관 작업이 시행에 차질을 빚양상이 또 빚어졌는 안심한 주의와 공정성을

대구일보 2008. 10. 13

시도의회, 산업현장 방문... '발로 뛰는' 의정활동 눈길

임시회 회기 중인 대구시의회(의장 최문찬)와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가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1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일 대한방직, 염색기술연구소, 섬유개발연구원 등 섬유관련 산업현장과 유관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산업현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교위는 이날 방문에 이어 14일에는

성서와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천)는 22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타시·도 공기업의 개발공사 경영우수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기경위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북 부안군 모항 건설 협장과 경남개발공사의 사업현장인 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 및 부산도시공사 시행사업현장인 신항 배후부지, 거가대교 건설현장을 잇따라 방문한다. 김승탁·이승욱기자

영남일보 2008. 9. 27

도청 이전 조례안 도의회 통과

국비 확보 등 이전작업 속도낼 듯

안동·예천지역이 경북도청 이전 지로 최종 확정됐다. 경북도의회는 26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부표를 거쳐

본래 존경의 뜻을 표현"이라고 밝혔다. 유석우 안동시의회 의장은 "김관용 도시사의 용인과 도의회의 큰일인 노력으로 도청소재지 조례를 제정해 도청이전의 기쁨을 마련한 것은 역사적인 일로 후세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이제 지역민들은 도청이전에 대

일간대구경북 2008. 10. 2

대구·경북 경제통합·상생발전

경북도의회 DGFEZ 연구모임 세미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박인철 청장은 1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DGFEZ 연구모임 세미나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특강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투자와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및 상생발전을 위한

다들 정립과 red tape제거를 통한 효율화 추구 등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역점추진 사업으로는 투자환경구축을 위해 11개 사업지별 특화된 개발 및 투자유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구별 여건을 감안, 개발 사업을 조속히

대구일보 2008. 10. 8

낙오자 만드는 일제고사 중단돼야

도의회 임시회...5분발언서 도청이전사업·멜리민 대책 촉구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 22회 임시회 첫날인 7일 소속 도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청이전 사업의 무리한 후속 조치 ▲중구 멜리민 파동 대책 마련 ▲일제고사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이계철 의원(상주·풍산문화)은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도 집행부의 공경하고 무리한 이전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공공연립 공무원연고위원과 농업기술원 등 소위 '알짜기 기관'의 각 시·군간 유치권 다툼 등의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신도청소재지 이

계 일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014호 의원



남성 의원



김승욱 의원

김승탁 의원(비례대표·행정정보복지)은 9일 말부터 일선 학교에서 실시되고있는 각종 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 중단을 주장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30일 중학교

남성 의원(용문·농수산)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멜리민 파동에 대한 대책 마련

과 과잉 감리 대책 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남 의원은 "중구산 멜리민 함유 농식품의 유통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와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홍보대책을 강해야 한다"면서 "도 집행부가 소비자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탁 의원은(비례대표·행정정보복지)은 9일 말부터 일선 학교에서 실시되고있는 각종 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 중단을 주장했다.

014호 의원

남성 의원

김승욱 의원

대구일보 2008. 10. 13

시도의회, 산업현장 방문... '발로 뛰는' 의정활동 눈길

임시회 회기 중인 대구시의회(의장 최문찬)와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가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1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일 대한방직, 염색기술연구소, 섬유개발연구원 등 섬유관련 산업현장과 유관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산업현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교위는 이날 방문에 이어 14일에는

성서와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천)는 22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타시·도 공기업의 개발공사 경영우수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기경위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북 부안군 모항 건설 협장과 경남개발공사의 사업현장인 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 및 부산도시공사 시행사업현장인 신항 배후부지, 거가대교 건설현장을 잇따라 방문한다. 김승탁·이승욱기자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동해민족의 섬 독도! 우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 512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복, 신라영토 귀속 - 삼국사기
- 1693 안용복은 일본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서계를 받음 - 숙종실록
- 1900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 41호를 제정·반포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
- 1914 독도를 경상북도로 편제하여 오늘에 이름
- 1946 연합국 총사령부에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 667호로 독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
- 1953 독도의 용수비대 조직 - 독도경비(대장 홍순철 등 대원 33명)
- 1956 국립경찰 독도경비 인수
- 1981 독도에 주민등록 최초 전입(최종덕, 울릉읍 도동리 산 67)
- 1982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 천연기념물 제 336호(독도해조류번식지)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독도관리지침에 의해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
- 2000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 도동리 산 42-76번지 → 독도리 산 1~37번지
독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환경부)
- 2003 정보통신부 독도에 우편번호 부여 '799-805'
- 2005 탐방로 등 11필지 공개제한지역(동도) 지정해제 : 입도 허가제 → 신고제로 전환
지번변경 : 독도리 산 1~37번지 → 독도리 1~96번지
- 2006 문화재 구역 지정 : 37필지 180,902m² (보호구역) → 101필지 187,554m² (지정구역)

